

Maison

메종 **marie claire**

2018 OCTOBER
WWW.MAISONKOREA.COM

I AM
THIS BOO!
PG:

INTERIOR

이중적인 캐릭터를 지닌
파리 아파트
아이도 어른도 행복해지는
판교 아파트

LIFESTYLE SHOPPING SPECIAL

취향에 따라 고른다
디자인 가구와 소품·패브릭·가전·아트 작품

SPACE

프로감성러들의 새로운 공간

SALA 1220

2018 MAISON & OBJET REPORT

자원의 순환, 재사용과 재활용이 올해의 테마

정가 6,500원

10



9 771227 846005
ISSN 1227-8467



올해의 테마, 버추어스

세계적인 트렌드 예측 기관인 벨리 로디 Nelly Rodi 사에서 발표한 이번 테마는 버추어스 Virtuous였다. 자연과 환경 등 인류를 둘러싼 것들에 대한 선행을 실천하면, 결국에는 모두의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을 존중하고 천연자원을 절약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대체재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개인 프로젝트인 '길티리스 플라스틱 Guiltless Plastic'을 진행하고 있는 갤러리스트 로사나 오를란디 Rossana Orlandi의 생각 역시 이와 일맥상통한다.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해양 오염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던 그녀는 "플라스틱에 관심을 갖고 있는 디자이너가 의외로 많지 않다. 하지만 저렴하면서도 변화무쌍한 플라스틱이야말로 무궁한 가능성이 있는 재료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올해의 테마관에서 버추어스의 테마를 실천하는 많은 디자이너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다.



올해의 디자이너, 라미 피슐러

각 전시마다 올해의 디자이너를 선정하는 메종&오브제에서는 봄에는 제품, 가을에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뽑는다. 이번에는 산업&인테리어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선보인 라미 피슐러 Ramy Fischler를 선정했다. 그는 반복을 싫어하고 기능을 중시하는 디자이너다. 공간이나 제품 표면에만 집중하기보다 사용자의 행동을 예측하고 프로젝트의 이유와 용도를 정의하며, 작품이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개발하고자 한다. 대표 작품으로는 내셔널 갤러리의 레스토랑과 파리에 위치한 트위터 본사, 노숙자와 난민을 위한 레스토랑 레페토리오 Refettorio를 들 수 있다. 조만간 그의 손길이 닿은 색다른 컨셉트의 영화관도 오픈될 예정이다.



Trend in Paris!

MAISON&OBJET 2018

파리에서 진행된 메종&오브제에 다녀왔다. 수천 업체가 참여한 메종&오브제는 단순한 리빙 박람회를 넘어 곧 다가올 가을, 겨울의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editor 문정

메종&오브제 REVIEW

지난 9월 7일부터 5일간 파리 노르 빌렝트에서 메종&오브제가 진행됐다. 메종&오브제는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진행되는 유럽 최대 규모의 인테리어 박람회다. 약 16만5000㎡ 규모의 박람회장에 전 세계의 3300개가 넘는 브랜드가 참여해, 바이어뿐만 아니라 트렌드를 엿보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크게 환영 받고 있다. 메종&오브제는 이번 전시부터 메종관과 오브제관으로 전면 개편돼 단시간에 더욱 편리하게 전시장을 둘러볼 수 있었다. 인테리어 위주의 메종관은 스타일별로 유니크&에클레틱, 투데이, 포레버, 크래프트의 4관으로 준비됐으며, 소품류를 선보인 오브제관은 제품 유형별로 쿡&세어, 스마트 기프트, 패션 액세서리, 키즈&패밀리, 홈 액세서리, 홈 프래그런스, 홈 리넨의 7개 관으로 나뉘었다.



레바논의 라이징 스타

재능을 지닌 젊은 디자이너를 발굴하는 것은 업계의 거장인 메종&오브제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번 라이징 탠런트 어워즈의 주인공은 레바논의 신진 디자이너들이다.

1 스튜디오 캐러멜 Studio Caramel

레바논 예술학교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하며 만난 칼 추크리와 라미 부쉬디드는 2016년에 스튜디오 캐러멜을 설립했다. 두 사람은 다양한 건축 회사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가구 디자인에 있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선보인다.



2 파올라 사크 Paola Sakr

사진부터 예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포용하는 디자이너다. 다방면적인 창작을 통해 혁신과 호기심에 대한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고, 공사 현장에서 찾은 콘크리트 조각으로 꽃병을 만드는 등, 그녀의 작품은 스토리가 있다.



3 카를로 마수드 Carlo Massoud

그의 작품은 기능적 설계와 설치 미술 사이에서 변화를 거듭하며, 사회적이면서도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뉴욕에서 일을 시작한 그는 고급 주거 프로젝트를 위한 맞춤형 가구 디자인을 총괄했으며, 카운 갤러리에서 프로젝트 톨스 Dolls를 선보이며 커리어를 쌓았다.



4 아나스타시아 니스텐 Anastasia Nysten

핀란드 아버지와 레바논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핀란드와 프랑스, 레바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가구, 인테리어 디자인을 통해 문화 배경을 표현하는데, 최근 프로젝트인 '트롤 Troll' 의자로 베이루트 디자인 페어에서 탠런트 어워즈를 수상하기도 했다.



5 마크 디베 Marc Dibeh

파리 발드센 국립건축학교를 졸업한 뒤 레바논 예술학교에서 제품 디자인 석사 과정을 밟았다. 디자이너 마크 바르드와 함께 3년간 일한 뒤 스튜디오를 오픈했다. 마크 디베는 지금도 그와 함께 와이어 시리즈를 작업하고 있으며, 2013년 디자인 마이애미에 초청 받기도 했다.



6 칼라 바즈 Carla Baz

파리의 사립디자인학교에서 공부하고, 스위스 로잔 예술학교에서 럭셔리 산업 제품 디자인 학위를 취득했다. 가구 디자이너 페르난도 캄파나와 산업디자이너인 로낭 부홀렉 등 수많은 디자이너를 만나며 경험을 쌓았다. 런던 지하 하이드 건축사무소에서 근무한 뒤 보고시앙 재단에서 수상하며 개인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버버리, 비비안 웨스트우드에서의 경험을 통해 패션을 연상시키는 우아한 가구를 제작해 디자인 상을 수상했다.

